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여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淸州韓氏報

發行人 韓珥洙
編輯人兼主幹 韓東元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 720-6370~1 FAX : 720-9215

韓昇洙 명예회장 국무총리 취임 축하연

청주한씨 80만 일가 이름으로 축하패 증정



왼쪽부터 상봉 국제장, 동관 관등대총장, 현수 중앙총회장 명예회장 승수총리, 양명상임고문 갑주 전 농림부장관 승현 전 감사원장, 춘식 고문 (사진 元敬)



중앙총친회 韓昇洙 명예회장의 국무총리 취임 축하연

중앙총친회는 지난 4월19일 정오 서울 여의도 63빌딩 3층 코스모스에서 珥洙 중앙회장, 陽命 상임고문, 勝憲고문, 甲洙고문, 상봉고문, 春植고문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회장단, 각급 지역총친회장, 각 종파회장 등 230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총친회 韓昇洙 명예회장의 국무총리 취임 축하연을 베풀고, 현수회장이 청주한씨 80만 일가의 이름으로 축하패를, 부산시총친회 五作 전 회장이 개인명의로 축하패를 각각 증정했다.

축제분위기 속에서 珥洙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축하연은 현수회장, 승현고문, 갑주고문의 축사, 相旭 총남회장의 축사 낭송에 이어 이날의 주인공인 승수총리의 답사가 있는 다음 승수총리와 현수회장의 의고문단 10명이 함께 한 축하제의 커터링, 양명상임고문, 춘식고문, 孝東고문의 건배사 및 건배제의, 기념촬영, 국제청장 상봉일가의 인사, 방승인 상진(개그맨)일가의 사회로 오찬과 함께 진행된 다채로운 여흥을 끝으로 오후 3시30분에 끝났다.

▶ 珥洙 중앙회장 축사

『대통령의 해의순방중 국무총리로서 국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총친회 행사에 참석하신 승수총리와 오늘의 이 축하연에 참석한 모든 일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승수총리 취임 메신문, TV 등 매스컴에서는 적인자라고 극찬을 했으며 이는 한문의 부러운 영광이며 자랑스러운 영예이다. 차원은 위대한 성씨이다. 이는 과거의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으며, 현재에서도 3연속으로 총리를 탄생시켜 삼한갑족·명문거족임을 내외에 과시했다. 이는 오로지 시조할아버님을 위시한 선조님들의

유덕이다. 승수일가는 총리 지명 때 이미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분이며, 경제를 살리고 자원의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격자이며, 매우 화합적으로 정권이 지향하는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적합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제학자로서 경제부처장관 3선국회의원, 주미대사, 유엔총회의장, 외국에서의 경제자문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유엔기후변화특사 등 전력이 승수일가가 총리 적인자라는 평가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승수총리께서 역사에 길이 기억될 수 있는 빛나는 업적을 남겨 먼 훗날 한문의 후손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조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80만 일가들은 승수총리와 같은 제2 제3의 훌륭한 일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자신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장학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모든 일가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 昇洙 국무총리 답사

『선조님들의 유덕과 80만 일가들의 기도 덕으로 총리 직에 오르게 되어 깊이 감사를 드린다. 저는 총친회에서 많은 대접을 받았다. 국회의원, 내각, 비서실장, 주미대사 등을 역임할 때를 포함해 오늘이 10번째 꽃다발을 받고 축하와 대접을 받는 자리이며, 특히 오늘은 한문에서 태어났음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 문중에서의 3연속 총리 탄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인 것 같다. 우리 한씨 집안이 대단하다고 자부하며 계속 한문에서 총리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일동 환영과 격려의 박수로 화답). 저는 인생의 가치로 명예를 최고로 생각한다. 재임 중 청렴하고 깨끗하게 청백리의 모범으로 관직을 마칠 것

이며, 근대의 황희정승처럼 깨끗하고 청렴하게 후대에 길이 남는 총리로 기록되어 본인과 한문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으니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 현 정부는 5가지 국정지표를 세워놓고 있다. 새 정부의 초대총리로서 재임 중 정책실현을 위한 바탕과 기반을 다지겠다. 3연속 총리를 배출한 우리 한문의 80만 일가들이 힘을 모아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꼭 그리해 주시기를 바란다(일동 박수). 한문이 배출한 승수총리가 역사에 남는 훌륭한 총리가 되어야 본인은 물론 한문에 영광을 안기고 또한 이를 통해 한문은 보통 집안이 아닌 존경받는 명문 집안으로 모두가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 勝憲(전 감사원장)고문 축사

『국무총리는 나라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승수총리는 정치, 행정, 경제, 외교, 국제문제 등 다방면에서 학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빛나는 업적을 쌓은 분으로 총리에 최적격자이다. 승수총리는 또한 역대 여러 정부에서도 중책을 중용되었었는데 이는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승수총리는 덕망이 높고, 항상 청렴하고 바르게 살아왔으며 화합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시다. 이 절도 한문의 자랑이다. 재임 중 국가에 크게 이바지 하시고 명예를 드높여 역사와 후대에 길이 남는 명망 있는 총리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승수총리 이후에도 계속 제4 제5의 총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후손들을 훌륭하게 육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가 여러분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 甲洙(전 농림부장관)고문 축사

『우리 한문에서 3연속 총리를 배출하고, 오늘 이곳에서 전국의 일가들이 모여 취임축하연을 베풀어 대해 감사하며, 가슴이 뻐뻐하다. 승수일가가 총리후보로 확정될 무렵 친구들로부터 "청주한씨는 어떻게 특별하게 3연속으로 총리를 배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시간을 내서 청주 인근 우리 시즈코스스를 가봐라, 그러면 3연속이 아니라 4,5,6,10대까지도 계속 재상이 배출될 수 있는 명당중의 명당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수중앙회장을 중심으로 80만일가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장학사업 등 후손들에 대한 인재육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해주었다. 항상 수고하시는 현수회장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함께 보내자(일동 박수). 앞으로 이대통령과 승수총리 두 분이 한 국현대사에서 국정을 가장 잘 이끌어난 대통령과 총리로 평가되고 기록되기를 기원한다.』

▶ 陽命 상임고문 건배사

『출세하여 명성을 세상에 떨치는 일은 부모와 선조에 대한 최상의 효도가 되느니라(一身揚名, 以顯父母, 孝之終也)고 하였으니 승수총리께서는 부모님과 선조님께에 최상의 효도를 바친 결과가 된다. 고려말 전법판서(典法判書)까지 올랐으나 조 선조 이태조를 거부하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킨 충절의 문신 몽계공(夢溪公)은 승수총리의 18대조이며 시조하 13세의 어른이다. 옛 속담에 '왕대 밭에 왕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승수총리의 선조에 이렇게 훌륭한 절세의 충신이 계셨으니 오늘날 승수총리 같은 명재상이 배출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린다.』

韓昇洙 국무총리 2월29일 취임

“선진국 기초 닦는 역할 하겠다”

韓昇洙 신임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2월25일) 5일만인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후 정식 취임했다. 승수일가는 지난 1월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으나 여야간의 정치적 압력으로 국회에서의 인준절차가 지연되어 취임이 늦어졌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신임 총리가 취임

할 때까지 惠洙총리가 직무를 수행하므로 써 신임 총리의 4일간의 공백은 사실상 우리 한씨일가의 국무총리에 의해 메워졌다. 승수일가는 취임사에서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출석 270명 중 찬성 174표)로 동의해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선진 국가를 만드는데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韓惠洙 전 총리는 2월29일 퇴임

“재임 중 소임 원만히 수행” 평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韓惠洙일가는 이명박정부 출범(2월25일) 5일만인 지난 2월29일 퇴임했다. 2007년4월3일 참여정부의 4번째 총리로 취임한 惠洙일가는 10개월 여 재임했다. 惠洙일가는 퇴임사에서 "1970년 국민소득 254달러 시절 경제 관료로 출발하여 2008년 총리 직에 있으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의 모습을 지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선진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한 번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惠洙일가는 10개월 여의 총리 재임기간 중 여수 엑스포 유치, 규제개혁과 공정한 대선관리 등 소임을 원만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중친회 장학기금 5,000만원 출연 정기총회 의결 따라 (재)청한장학회에 기탁

대구·경북중친회(회장 희섭)는 지난 5월 6일 정기총회(5월 3일) 의결에 따라 (재)청한장학회에 장학기금 5,000만원을 출연했다. 대구·경북중친회의 경우 단위장학회로 설립되지 않았지만, 3,000만 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출연하면 단위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16개의 단위장학회 중에는 수개의 1억원 규모와 2억원 규모의 단위장학회도 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3,000만 원 이상을 출연하여, 출연자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단위장학회를 설립하면,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 과실금은 기금 출연자가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와 되어있으며, 기금은 출연자의 명의로 승계되어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장학기금 기탁한 일가들에게 증서와 함께 2천만 원 이상은 명예회원증, 5백만 원 이상은 공로회원증 1백만 원 이상도 공로회원증을 각각 증정

珞珠 중앙중친회장 겸 (재)청한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4월19일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승수총리 취임 축하연에서 장학기금 1,000만 원 이상 출연한 일가들(대표 만희)에게 장학기금증서와 함께 명예회원증, 500만 원 이상(대표 창성) 및 100만 원 이상(대표 희경)을 출연한 일가들에게는 장학기금증서와 공로회원증을 각각 증정했다.

현수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그 동안 100만 원 이상 출연한 일가는 200명 정도가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욱 더 장학기금 모금에 협조하여 제2, 제3의 훌륭한 후손들이 배출되어 대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인제양성에 모든 일가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8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안내 5월7일부터 2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 시 : 2008년 5월 24(일) 오전 11시
- ▶장 소 : 시조부군 묘정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 ▶참석범위 : 선발된 장학생 및 국내외 거주 청주한씨 전 종원
- ▶식전행사 : 시조부군 양위 앞에 장학금 지급 고유제(告由祭)
- ▶참고사항 : 장학증서 및 장학금은 반드시 장학생이 직접 참석, 수령해야 하며, 불참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정에 의해 당초의 17일에서 24일로 수여식 일자가 변경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720-6370~1 (중앙중친회)
043-298-4025 (시조묘 재실)

2008년 5월 일
(재)청한장학회 이사장 한 현 수
청한장학회후원회 회장 한 양 명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2008년 7월 개통예정인 수단 신청은 오는 6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수단비는 8천원 입니다.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0,000원 입니다.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된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10cm×15cm=4인치×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을 족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요령

-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庚)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2월15일 생, 1980년2월15일 출
-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성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신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평(合平) 또는 쌍보(雙寶)
-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경(金惠英) 김해린(金海人) 부친 英朱 생, 출,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夫(夫) 김태식(金泰植) 김해린(金海人)·사위의 생, 출, 경력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과 외손녀가 있으나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효(英鎬), 호 무능(無能)으로 기재합니다

-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 수단용지는 홈페이지(청주한씨 또는 www.cheongjuhan.net)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 직계·촌수 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징,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 청주한씨중앙중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중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 클릭 하면 ‘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도를 보시고 잘 되지 않으면 중앙중친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립니다 중앙중친회가 일가들의 조상을 찾아 드립니다

현수회장, “족보 없으면 ‘뿌리’ 없는 자손 됩니다”

우리 청주한씨는 기지(箕子)조상과 마한(馬韓)을 거쳐 이어온 왕조의 후예로서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왕비, 상신(相臣), 공신, 장상(將相)들을 배출한 명문거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가들은 누구나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훌륭한 조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모셨음에도 너무나 많은 일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뿌리’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중친회는 현재 국내외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80만 일가들의 호응속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중앙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의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는 일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珞珠 중앙중친회장은 최근 총보 편집안과에 인터뷰를 통해 “청주한씨는 80만명에 달하는 대성(大姓)인데 대동족보에 등재되어있는 일가는 불과 10만명 미만이니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일가들이 훌륭한 조상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자손들에게 조상의 ‘뿌리’를 설명해줄 수 없었던 그 동안의 비애(悲歎)를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찾

아 ‘인터넷족보’에 올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珞珠 회장은 특히 ‘수단(收單)과 함께 조상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 등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을 ‘인터넷족보’에 올리면 대대손손 자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상의 뿌리와 가정의 내력을 동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족보가 없으면 대대손손 ‘뿌리’ 없는 자손이 되니 모두가 나서서 모르고 있는 일가들에게 알려주어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앞장 서자”고 호소 했습니다. ‘뿌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족보가 없거나 몰라도 선조님의 할차(裔序)·이름만 알면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중친회가 일가들의 ‘뿌리’를 찾아드리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중앙중친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에 주십시오.
〈연락처〉 청주한씨중앙중친회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위원회
(02) 720-6370~1, 9215(팩스 번호)

'08년도 정기총회, 사업계획·예산안 채택

세 전·현총리 참사위해 시조시향 올하는 토요일로 현수회장 "장학회관과 역사관 건립은 최대 현안"



'08년도 정기총회

중앙총친회(회장 琚洙)는 지난 2월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소재 국방회관에서 2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도 결산안 및 감사보고와 2008년도 사업계획안(중보 전호에 게재)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한편 정관 제38조(기구) 2항과 6항(신설)을 개정했다.

▶정관 개정내용 별항

한편 이날 총회의 의안으로 들어있던 시조시향일 변경안(현행 음력 10월1일을 휴일인 양력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현수회장이 회의 벽두 인사말에서 의안을 철회한다고 밝혀 심의가 보류되었으나, 3연속으로 총리에 오른 韓明淑 韓惠珠 韓昇洙(대 정부 초대 총리로 현재 재임 중) 세분의 일가가 제관(祭官)으로 함께 참사(參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력 10월1일로 되어있는 현행 시조시향일을, 올하는 휴일인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기로 만장일치의 결했다.

琚洙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문중에서 3연속 총리 탄생은 우리 현정사에서는 물론 세계 역사상에서도 유례가 없는 진기록으로, 이는 오로지 시조 할아버님을 위시한 선조님들의 유덕이며, 우리나라 8대 명당 중의 하나로 꼽히는 시조묘역의 지형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음

덕으로 시조 이후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수회장은 이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대를 이어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한문에서 대통령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학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여, 더 많은 자손들이 그 혜택을 입고 훌륭하게 입신(立身)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각급 지역총친회와 각 조파 및 지파(支派)에서 그들의 명예를 위해 경쟁적으로 단위장학회 설립에 나선다면 청한장학회는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도 언급, "얼마 전에 충북 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역사관 건립문제를 설명했더니, 한쪽 문중에서 기초적인 여건을 갖추고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농림부장관 卍洙고문은 격려사에서 "한 문중에서 3연속 총리 탄생은 세계현정사에도 없는 기록으로, 이는 오로지 선조님들의 유덕이며, 역대 중앙회장들과 임원들의 지도력과 모든 일가들의 화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장학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여 자손들 중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장도 나오고, 4연속·5연속 총리도 탄생되고, 세계 학계에서도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어 한문의 전성시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이어 陽善상임고문, 春植고문, 希天상계회장이 차례로 등단, 청추환씨의 무궁한 번영과 총친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 장내는 우렁찬 '건배'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임원 회비 납부실적 53%로 부진 업무집행에 지장 많아 개선 시급"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 지적-

지난 2월28일 국방회관에서 개최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在瑞, 贊熙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지난 해 임원 회비 납부실적이 53%로 부진하여 중앙총친회의 사업집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임원들의 회비 납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琚洙 중앙회장은 "특히 이사들의 회비(10만원) 납부성적이 부진하여, 수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개인적으로 4,300만원을 부담하여 부족분을 충당했다"고 밝히고 "올해부터는 각급 지역총친회 이사들의 회비를 당해 지역총친회의 기금에서 일괄해서 납부하도록 중앙회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했으므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바로잡습니다〉

- ▲1면 '분회 한수우 명예회장 국무총리 지명' 제하 기사의 끝에서 2번째 줄 「4명속」을 「4연속」으로 바로잡습니다.
 - ▲2면 중간 '청한장학회 후원회 2007년도 총회' 제하 기사의 9번째 줄 「앞으로 공로회원을 '질려하여'…」를 「정려하여」로 바로잡습니다.
 - ▲7면 오른쪽, 위에서 2번째 '한동수일가 청송군수 당선' 제하 기사의 4번째 줄 「...청원군수...」를 「청송군수」로 바로잡습니다.
- (이상의 잘못된은 대구 청추환씨한영회 회장 茂秀일가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파 전 금(재실보수비) 단위:천원

현수 회장(중앙회 회장)	5,000
춘식 부회장(에반윤공파 회장)	5,000
장훈 부회장(충북도 회장)	3,000
상우 부회장(충남도 회장)	1,000
석호 부회장(대구경북회장)	1,000
성룡 부회장(조직 전담)	1,000
양명 상임고문	1,000
옥두 부회장(부산시회장)	1,000
우선 부회장(서초구회장)	1,000
창섭 부회장(경기 회장)	1,000
추태 부회장(철기파 회장)	1,000
희경 부회장(여성 전담)	1,000
백준 부회장(장학전담)	500
택수 부회장(군산시 회장)	500
합계	23,000

헌성금(승수총리 취임 축하연) 단위:천원

승수총리취임 축하연 당일회비	6,000
우선 부회장(서초구 회장)	3,000
창섭 부회장(경기 회장)	2,000
부산총친회	1,500
만희 부회장(교육 전담)	1,000
성룡 부회장(조직 전담)	500
합계	14,000

일반찬조헌성금(1~4월) 단위:천원

양명 고문(상임고문)	2,000
당일회비(삼재총향대제 참석시)	630
희경 부회장(여성 전담)	500
강 지문위원(수곡추모회장)	300
경석 지문위원(경기 용인시)	300
기황 지문위원(전 경남도총친회)	300
광운 고문(서울 관악구)	200
심량 이사(서울 관악구)	200
필진 지문위원(서울 성북구)	200
하다리총친회	200
희경 부회장(여성전담)	163
근택(경기 남양주시)	100
복섭 지문위원(전남 강진군)	100
석관 부회장(법률 전담)	100
석관 지문위원(서울 성북구)	100
성순 고문(경기 성남시)	100
이택 지문위원(경기 용인시)	100
정순(경기 화성시)	100
준희(청원위중중, 판서공송산중중 회장)	100
기대(검참공하 사복시정공파 회장)	50
합계	5,843

〈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 내용〉

- ◆제38조(기구) 2항에 단세(이래 고딕 글자 부분)를 추가, 신설한다.
 - ▲2항-사무처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각 실·부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상임이사, 총무, 재정담당은 상근으로 하고, 그 외의 실·부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 단, 업무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원 내에서 상근직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제38조(기구)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이래 고딕 글자 부분)한다.
 - ▲6항-사무처의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사유-근거가 불가능한 부적격 사유 외에는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되 소속감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업무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룡산에서 시산제·2월 산행은 칠갑산 청한산악회



현수 회장을 위시한 청한산악회 회원 44명(서울42명, 천안2명)은 지난 3월23일 충남 계룡산(845m)에서 시산제를 올리고 올 한해의 무사한 산행을 기원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로 시산제 행사와 안전산행이 열려졌으나, 현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빗줄기가 약해져 모두가 조상님의 보살핌 덕이라 감사를 드리면서 동화사 인근 평지에 간이천막을 설치하고 무사히 시산제를 올릴 수가 있었다. 국립공원 계룡산은 조선조 개국 초에 태조가 계룡산 기슭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울만큼 명당이며 명산이다. 시산제를 마친 후 일부(25명)는 동화사 쪽에서 공주의 갑사 쪽으로 약 3시간의 산행을 하였고, 산행을 하지 않은 회원들은 유성에서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 다음 갑사 입구의 산물림식당에서 합류했다. 이날 시산제 재수품을 준비한 선호 산행부장과 찬조금을 헌성해 주신 현수회장, 춘식회장, 강희(희)회장 이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한다. (글 鍾仁, 사진 元教)

시산제 산행에 앞선 2월의 산행(24일)은 충남의 알프스로 이름난 청양 7甲山(칠갑산·561m)의 크고 작은 아흔 아홉골을 바라볼 명산을 택했다. 산의 이름 때문인지 등산로도 7개로 정해져오가는 사람들의 소리마다 "쿵발 때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흠뻑 적셨네 무슨 사연..." 해가며 이산 저산에서 가슴시린 가락이 울려 퍼진다. 옛날 백제는 이 산을 사비성(부여) 정북방의 진산(鎭山)으로 성스럽게 여겨 제천의식을 행하였다고 하며, 그래서 산 이름도 만물생성의 7대 근원(地水火風空見識) 七자 와 뜻의 마자로 생명의 시원 칠갑산이라 경칭하여 왔다고 한다. (글 수갑)

韓善教일가 18대 국회의원 당선

한문에서 14명 출마에 단 1명 뿐



17대 국회의원인 한선교(59년생)일가가 지난 4월9일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읍(乙)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한문종회에서 14명의 일가들이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선교일가 한사람만이 당선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和甲, 明淑, 光元

善教, 秉道일가 등 5명이 당선되었었다. 이제 2선의원이 된 선교일가는 성균관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를 취득했다. 1984년 MBC 아나운서로 방송계에 입문, 2003년까지 MBC, SBS, 경인방송 등에서 아나운서와 MC(사회자·master of ceremony)로 활약했으며, 2004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997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2004년), 중부일보 율곡대상(2005년)을 수상했다.

「청주한씨 종친의 밤」성황

뉴욕종친회, 신·구회장 이·취임 승수총리, 현수회장 축사 보내



이·취임한 태홍 전임회장(왼쪽)과 태희 신임회장

미국 뉴욕종친회(회장 태홍)는 지난 3월9일(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 그랜드 볼룸(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청주한씨 종친의 밤」행사를 갖고 전임 태홍 초대회장과 신임 태희회장의 신·구회장이·취임,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장학금 수여 등 공식행사에 이어 노래자랑 등 각종 여흥을 베풀어 일가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로 취임한지 10일에 불과한 韓昇洙 중앙종친회 명예회장과 한현수 중앙종친회장이 축사를 보내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난 재미 일가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승수명예회장은 택선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제가 뜻 밖에도 국무총리라는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조 위양공(威襄公) 할아버님을 위시한 훌륭한 선조님들의 유덕(懿德)을 입은 결과이며, 80만 일가분들의 성원에 힘입은 덕택이라고 생각되어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재물이든 학문이든 노력한 만큼 보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갖춘 기회의 나라이므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하시고, 특히 자손들에 대한 교육투자에 전력을 다해 이곳 뉴욕에서 가문을 일으키고, 한문을 빛내는 보다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청한장학회의 장학기금 무급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수회장은 상기 미등

부지역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청주한씨는 지난 2-3년 동안 韓明淑, 韓應洙, 韓昇洙 일가로 이어지는 3연속 국무총리 탄생이라는 진기록을 세워 명실공히 자라가 공인하는 명문거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고 말하고 "우리 청주한씨 종친회의 가장 으뜸가는 덕목(德目)은, 승조(崇祖)돈목과 명문거족으로서의 위상을 면면히 이어갈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현수회장은 특히 청한장학회내 「단위장학회」에 대해 언급, "「단위장학회」는, 3,000만 원 이상출연하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출연자의 의향대로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금과 명예가 장학회내 명예의 전당과 시조묘역에 세워질 기념비가 새겨져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뉴욕종친회에서 단제나 회사 또는 개인 명의로 청한장학회에 많은 「단위장학회」를 설립하여 기금과 명예를 영원히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태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행사는 대회장(홍석 부회장)으로 시작되어 국민의례(테니 문섭일가의 애국가 제창), 종훈(宗訓)낭독(택선 수석부회장), 한씨유래 설명(승수 부회장), 신·구회장이·취임 인사, 공로패(받은 일가·태홍 초대회장, 기연 재정부회장) 및 감사패(받은 일가·전인승 세계일보 대표, 택선 수석부회장, 상기 미등부지역회장, 경옥 여성부회장) 증정, 장학금 수여(수명학생·대학부 수영 일가, 고등부 재웅 일가, 강혁민), 종친회 연혁 설명(동태 사무총장), 축사(승수총리, 현수회장, 병락 뉴욕 부총영사), 피아노 연주(요한 일가)를 끝으로 공식행사를 마쳤다. 이어 뉴욕연예인협회 이사 '찰스 이'의 사회로 시작되어, 뉴욕연예인협회 민영철회장의 음악반주로 진행된 식사 및 여흥은 케이크 자르기, 건배, 에어로빅 시범(장수진 에어로빅), 축가(문섭일가), 가족노래자랑, 행운권추첨 및 기념품 전달, 시상식을 끝으로 '청주한씨 종친의 밤'의 막을 내렸다.

◆뉴욕종친회 임원진

▲회장-태희 ▲수석부회장-택선 ▲고문-태홍(초대회장), 우갑 ▲동부지역회장-상기 ▲재무부회장-기연 ▲부회장-홍식(행사준비위원장), 범행(행사준비위원), 성수, 민호, 성목, 청곤 ▲여성부회장-경옥 ▲사무총장-동태 ▲총무-성혁 ▲감사-칭연 ▲홍보부장-국주 ▲조직부장-기영 ▲섭외부장-동신 ▲재증동포부장-경여, 길석, 민환, 희정.

승수총리와 현수회장에 감사패

뉴욕종친회 태홍 초대회장 증정

뉴욕종친회 泰洪초대회장은 지난 3월9일 중앙종친회를 방문, 국무총리로 취임한 昇洙중앙회 명예회장과 瑠洙중앙회

장에 국무총친회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지난 3월27일에는 신임 회장 태희일가가 중앙종친회를 예방했다.

한기범일가 국정원 3차장 취임

대북 부서에만 근무한 북한통



경기도 안성 출신의 한기범(53)일가가 지난 3월10일 국정원 북한정보실장에서 3차장(대북담당)으로 승진, 취임했다.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행사 29회에 합격한 기범일가는 국정원 대북문제 관련 부서에서만 20여 년간 근무한 북한통으로, 지난 2006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했을 때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등 민첩성을 보였다. ▲NSC 사무처 국장급 파견 ▲ 국정원 8국 단장 ▲북한정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진희일가 서울경찰청장 취임

경무기획국장에서 승진한 기획통



한진희일가가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승진, 지난 3월7일 취임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진희일가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경찰간부 후보 29기로 경찰에 투신, 많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경찰업무의 기획통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1991년 충북경찰청 경비계장을 거친 후 서울경찰청 기획계장, 충북경찰청 보안과장, 청주 서부경찰서장, 경찰청 기획과장, 경기도 일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과장, 서울 강남경찰서장, 경찰청 공보관, 서울경찰청 차장, 충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민구중장 육본 참모차장에

한홍전중장 육본 인사사령관 한동주소장 9사단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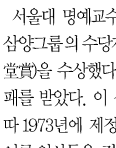
한문의 세 장군 일가가 지난 4월 1일자로 승진 또는 보직이 변경되었다. 육군중장 한민구(55·육사1기) 일가는 수방사령관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한홍전 일가는 중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인사사령관으로, 한동주 일가는 소장 진급과 동시에 9사단장으로 각각 취임했다.

한대희일가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참후 韓大熙일가는 지난 4월17일 제36회 보건의 날을 맞아 '대한한의협회 40년사 편찬'과 '의성(醫聖) 許後 기념사업의 성공'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한 의회와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의 공동 추천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한송엽일가, 수당상 수상



서울대 명예교수인 한송엽일가가 지난 5월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양그룹의 수당재단(이사장 김상홍 삼양그룹 명예회장) 제17회 수당상(秀堂賞)을 수상했다. 응용과학 부문 수상자인 송엽일가는 1억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이 상은 삼양그룹 창업자인 수당 김연수(金季秀)선생의 호를 따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상되어왔다.

한민구일가 특허정보원 이사장 취임



서울대 공대 교수인 한민구(60)일가가 지난 3월 초 한국특허정보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민구일가는 경기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대한전기학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한수민일가 49회 사법고시 합격



韓守珮(여·사진)일가가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 지난 3월8일 사법연수원에 입학했다. 2008년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수민일가는 중앙종친회 자원위원 必傳일가의 2남인 萬重일가의 장녀이다.

무강왕 · 왕비 춘향대제 봉행

‘익산쌍릉’ ‘대왕묘’와 ‘소왕묘’에서



무강왕·왕비 춘향대제 봉행

무강왕(武康王)과 무강왕비 춘향대제가 지난 음력 3월15일

(양력 4월20일) 오전 전북 익산 소재 ‘익산쌍릉’(益山雙陵)에서 수많은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왕묘’로 불리는 무강왕릉과 왕릉 서쪽 200m 거리의 ‘소왕묘’로 불리는 왕비릉에서 차례로 각각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로,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왕(友王)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됨으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이며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서 명문층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한(北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씨(奇氏)가 되었다.

추·모·봉 삼재조 세제 성대히 봉행

6세조 예빈경부군 (음 3월1일 · 추원재에서)

7세조 문혜공부군 (음 3월2일 · 모원재에서)

8세조 제학공부군 (음 3월3일 · 봉강재에서)



추·모·봉 삼재조 세제

2008년도 추·모·봉(追·慕·鳳) 삼재조(三齋禱) 세제가 지난 음력 3월1일(양력 4월6일)부터 3일간 珮洙 중앙총친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900여명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6세조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의 추원재(追遠齋), 7세조 문혜공부군(文惠公府君)의 모원재(慕遠齋), 8세조 제학공부군(提學公府君)의 봉강재(鳳崗齋)에서 각각 엄숙하게 성대히 봉행되었다. 첫날 세제에 앞서 오전 10시30분부터 東鏡齋 추부의 사회로 추원재 예빈경부군 묘전에서 거행된 식전행사에서 淳堂(32세 · 전남보성군곡안면해평리월평), 匪珠(31세 · 전남영광군군남면퍼천리430-8) 일가에게 공로패, 金英子(전남영광군법성면월산리99)씨에게 표장패(효부상)가 각각 증정되었다. 翕天삼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珮洙 중앙총친회장을 비롯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각 시도회장님들과 각 종파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일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씨 문중에서 3연속 국부총리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시조할아버님 이하 선조님들의 음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희천회장은 이어 “이곳 예빈경 할아버님 묘소는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옥룡자(玉龍子)도선국사께서 용사취해(龍蛇聚會)를 담사하고 호남담산결록(湖南踏山決錄)에 조선 4대 명당중의 일당(一堂)이라고 기록했으며, 또한 이태조께서 처가의 선조인 예빈경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는 ‘이 묘는 왕릉과 다를없는 대명당’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우리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갖자”고 말했다. 珮洙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일가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특히 翕天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세제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특히 올해 시조세향에는 3연속 기록으로 한문을 빛낸 세분 국부총리 일가들이 함께 참사(參祀)하여 경사스러운 축제분위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향일을 토요일로 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많은 일가들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총친회 沃斗 회장은 축사를 통해 “명문거족으로서의 한문의 명성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특히 삼재관리위원회의 발진된 모습에 마음이 흐뭇하며, 앞으로 전국의 일가 여러분들이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문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東鏡삼재총무)

삼재조 세제 헌관(獻官) 분방(分房)

▲6세조 예빈경부군

초헌관 : 珮洙(31세) 중앙총친회장
이헌관 : 百賸(29세) 서울
중헌관 : 沃斗(33세) 부산

▲7세조 문혜공부군

초헌관 : 玄鏞(30세) 서천
이헌관 : 緝玄(30세) 서천
중헌관 : 相基(32세) 영광

▲8세조 제학공부군

초헌관 : 翕天(29세) 삼재회장
이헌관 : 益煥(30세) 삼재도우사
중헌관 : 在仁(33세) 광주광역시

중앙총친회, 태안기름피해주민 위로

청한산악회 · 천안산악팀 · 당진군 일가들



중앙총친회(회장 珮洙)는 지난 4월6일 현수회장 주재아래 134명의 일가들이 3대의 버스에 분승, 기름 피해로 생활의 터

전까지 잃은 충남 태안기름피해지역을 찾아 식당에서 음식을 팔아주면서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태안기름피해지역을 찾은 일가들은 서울의 청한산악회팀 42명, 천안총친회산악회팀 45명, 당진군총친회 일가들 4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오전 봉행된 예빈공세제(전남 영광)에 참사(參祀)한 후 수도권과 충청지역으로 귀가하던 길에 피해지역의 ‘몽산포회집’ ‘짜뚜미회집’ ‘몽산포구동태회집’ 등에 나누어져 식사를 했다. 이날의 경비 180만원은 전액 현수중앙회장이 부담했다.

문성대왕 추모 봄 제향

음 3월5일 ‘기성전에서

기자조선(箕子朝鮮)을 건국한 문성대왕(文聖大王)을 추모하는 봄 제향이 지난 음력 3월15일(양력 4월20일) 충북 괴산군 도안면 노암리 소재 기성전(箕聖殿)에서 기성전문화재현장회 주관으로 많은 일가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기성전 제향은 1년에 두 번 음력 3월15일(봄 제향)과 음력 9월15일(가을 제향)에 봉행된다.

9세조 사숙공부군 시향 봉행



9세조 사숙공부군(晝泐) 시향이 지난 4월5일 오전 11시 수백 명의 후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사숙공 추모단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어 평강공, 문경공, 충간공, 판사공, 문열공부군의 시향도 차례로 봉행되었다. 사숙공 시향의 헌관 분방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현수 중앙총친회장 ▲이헌관 동역 문정공파 회장 ▲중헌관 무용 문열공파 회장

침정공총친회 임원회의

징학금 조성 적극 참여기로



침정공총친회(회장 澤洙)는 지난 3월25일 오전 군산시 대야 나드리에서 정기임원회의를 열고 결산안과 주요사업계획안을 심의하는 한편 10세 서원군(晝方)의 사당 건립방안을 협의, 임원들이 초석이 되어 소문중병 또는 개인적으로 헌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총친회와 청한총친회와 추진중인 장학기금 50억원 조성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조묘역에 건립되는 기념비에 명예로운 이름을 올려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의 회의는 회장이 주재했다.

삼재관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추·모·봉 삼재관리위원회(회장 翕天)는 지난 3월22일 추원재 제실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과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는 한편 2008년도 추·모·봉 삼재조 춘향세제(음력 3월1일~3일, 양력 4월6일~8일)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결원중인 임원 보선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재춘천 청장년회 자연보호 캠페인

총친회 재춘천 청장년회(회장 만우) 회원 30여명은 지난 4월20일 춘천 구곡폭포 정상에 있는 문배마을에서 등반대회를 가진 후 쓰레기 수거하는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한태동일가, 용재학술상 수상



연세대 명예교수 한태동일가가 지난 3월7일 제14회 용재 백낙준학술상을 수상했다. 용재학술상은 연세대 초대 총장을 지낸 용재 백낙준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태동일가는 훈민정음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를 통해 한글 창제 이론을 규명하고, 한글의 음성학적 창의성과 우수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상훈일가 LG배 기왕전 준우승

세계대회 최연소 결승진출 기록



한상훈(20)일가가 지난 2월29일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 이세돌 9단과 대국했으나 1승2패로 석패,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20세의 상훈일가는 세계대회 최연소 결승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8,000만원의 준우승 상금과 함께 2단에서 3단으로 승단했다.

단위:천원

장학기금남부 내역(1~4월)

단위:천원

Table with 4 columns: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Lists various fund names and their financial details.

Table with 4 columns: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Continuation of the fund list from the previous table.

Table with 4 columns: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Continuation of the fund list from the previous table.

운영회비(1~4월)

단위:천원

Table with 2 columns: 이름, 금액. Lists operational expenses for various groups.

개인종보비(1~4월)

단위:천원

Table with 2 columns: 이름, 금액. Lists individual contribution expenses for various groups.

Table with 2 columns: 이름, 금액. Lists individual contribution expenses for various groups.

Table with 2 columns: 이름, 금액. Lists individual contribution expenses for various groups.

단위:천원



부산시종친회 회장에 沃斗일가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 헌성



부산시종친회 회장 · 취임식

부산시종친회는 지난 3월11일 오후 6시 부산역전 아리랑관 광호텔 10층 대연회에서 300여명의 일가들과 중앙종친회 및 경남도내 각급 지역종친회 회장단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沃斗회장(가산)과 正旿 전임회장의 이·취임식 및 단합총회를 열고 그 동안 침체되었던 부산종친회의 활성화와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으며, 沃斗회장은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헌성했다. 이날 단합총회에는 중앙종친회에서 珮洙 회장, 春植고문, 百勝 부회장, 星燮부회장, 경남도종친회에서 건석회장, 경현고문, 울산종친회에서 윤희회장과 효균, 영재 전 회장, 성국부회장, 沃斗회장의 출신지인 남해군종친회에서 재호회장과 많은 일가들, 그리고 서울에서 仁玉여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주회장 등 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부산종친회의 발전을 축원했다. 기흥총무와 총서일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현수중앙회장은 부산시종친회 정조 직전회장에 공로패를, 옥두신임회장은 황영자여사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옥두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종친회 50년의 빛나는 역사를 이어받아 삼한각족의 긍지를 바탕으로 종친회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과 장학회관 건립사업에 적극 참여하자"고 말하고 "우리 헌법은 조선시대의 여섯 분 정승에 이어 근래에는 최초의 여성총리와 3연속 총리를 탄생시킨 명문중의 명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간다면 앞으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현수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종친회는 과거 한때는 전국 최고로 활성화되고 단합이 잘 된

종친회로 명성을 떨치다가 근래에 와서 잠시 침체된 모습을 보여 왔었는데, 이제 능력이 뛰어난 CEO 옥두회장의 취임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하며, 장학기금 50억 조성사업에서도 부산종친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하는 한편 동행한 총서고문을 소개하면서 "이복에서 단신 월남하여 지수성가한 분으로 시조묘역의 4위단 설단을 헌성하는 등 총사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장학기금 2억원을 출연하여 '우원공단위장학회'까지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빈으로 참석한 김영주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한씨 일가들 뿐 아니라 옥두회장 고향인 남해향우회에서도 많은 축하객이 참석했는데 이는 옥두회장이 평소 고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고, 남해향우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특별한 애정심을 발휘하여 고향가를 도로에 비롯나무 심기 등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며 남해신문과 남해시대사 등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다"고 칭송했다. 옥두회장은 1942년 남해군 남면 두곡마을에서 장성공파 33세손으로 출생했다. 경남 유림에서 효자비를 세울 만큼 자랑스러운 가문에서 성장하여 지금은 경남 김해에서 지역의 중견기업인 동아유리창호(주)를 경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총회 폐회 후 2부에서는 흥겨운 프로그램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평양 가수 한옥정일가가 사회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MBC 전속가수 출신인 김귀옥과 국악가수 이영훈, 민요가수 한현덕일가와 최장미를 비롯한 김정규 악단 등이 출연하여 노래와 춤으로 한껏 흥을 돋우는 여흥이 진행되었다.

군산시종친회 정기임원회의

군산시종친회(회장 淵濤)는 지난 2월29일 오전 11시 중앙로 임마식당에서 2008년도 정기임원회의를 열고 ①승조도목 ②총회칙 참여 ③총보사업 협조 ④청한장학금 모금 협조 ⑤10세 서원(冠韓 方節) 사당 건립 성금협조 등 주요사업을 논의한 끝에 임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미 납부한 단체총보비외에 연 2만원의 개인총보비도 빠짐없이 납부하기로 했다. 백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산사내에 거주하는 1,000여 세대의 화합과 종친회 발전에 노고름이까지 않은 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종친회 기금조성을 위해 많은 임원들이 기여하고 있는데, 대야농협 상부이사로서 있는 전수일가는 매일 봉금 때마다 자동어예 방식으로 1만원씩(누계 60만원) 납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창술이사 5만원, 군산농협 지점장 한석일가가 15만원, 전 군산대학교 총장 연종일가가 해마다 10만원, 시의원 경봉일가가 10만원, 천수이사가 5만원 백수회장이 금일봉을 각각 헌성했다.

당진군종친회 정기총회

충남 당진군종친회(회장 장석)는 지난 3월5일 오전 11시 설악기에서 중앙회 珮洙 회장, 春植고문으로 참석한 가운데 80명의 회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 총사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장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분 일가들의 3연속 총리 취임은 한문의 영광이며, 우리는 용기백배하여 총사일에 한층 더 열심 참여하자"고 말했다. 현수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청추한씨는 3연속 총리탄생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말하고 "위대한 조상들의 위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장학회관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서산시종친회 정기총회

충남 서산시종친회(회장 만규)는 지난 3월3일 오전 11시 백조역식당에서 珮洙 중앙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50여명의 일가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고 종친회의 발전방향 등 총사에 관해 논의했다. 만규회장은 인사말에서 "연일 지역종친회를 순방하면서 격려를 보내주신 현수회장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중앙종친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회관 건립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현수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3연속으로 총리를 탄생시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장학기금 조성 등 종친회사업에 적극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군종친회 정기총회 회장에 은석일가 선임

인천광역시 강화군종친회는 지난 3월18일 오전 11시30분 강화상에서 중앙회 春植고문, 百勝 부회장, 星燮부회장, 鍾仁상부가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150여명의 일가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 전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은석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추인하는 한편 총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자로 퇴임한 총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임 은석회장은 도와 종친회 발전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재 가장 현안인 장학회관 건립을 위해 신임회장으로 장학기금 헌성에 앞장서서"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회 성심부회장은 현수중앙회장을 대신한 격려사에서 "은석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전임 총열회장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장학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중앙종친회 내방 일가

- 德宝 중국 길림성
- 基大 경기 이천시
- 鳳龍 서울 강남구
- 상조 서울 송파구
- 정우 경기 성남시
- 지우 경기 고양시
- 鎭寬 서울 성북구
- 응식 경기 의정부
- 相坤 경북 구미시
- 致鎔 서울 광진구
- 일택 서울 구로구
- 東俊 서울 서초구
- 相根 서울 금천구
- 광열 인천 용현동
- 영호 서울 성동구
- 輪珠 서울 송파구
- 榮洙 광주 광산구
- 東日 경기 안산시
- 導生 서울 강남구
- 鍾國 서울 강서구
- 영민 경기 고양시
- 榮坤 경기 고양시
- 鍾士 서울 동작구
- 善宗 서울 광진구
- 昌植 경기 시흥시
- 基간 경기 성남시
- 相一 서울 노원구
- 東德 경기 성남시
- 錫우 서울 송파구
- 元教 서울 마포구
- 義泰 경기 남양주
- 錫泰 충남 천안시
- 鎡洙 충남 천안시
- 正仁 서울 광진구
- 珮洙 경기 이천시
- 哲洙 경기 광주시
- 상교 경기 양주시
- 병준 서울 관악구
- 命豪 충남 연기군
- 命泰 서울 성북구
- 용민 인천 부평구
- 상룡 충남 아산시
- 砌鎔 서울 송파구
- 덕기 서울 성동구
- 奎華 서울 강동구
- 태희 미국 뉴욕
- 允皓 서울 마포구
- 춘부 서울시 중구
- 영학 경기 남양주
- 槲泰 충남 천안시
- 正仁 서울 광진구

전주시종친회 회장에 기수일가 목표 관광길 현지에서 정기총회

전주시종친회는 지난 4월24일 관광 길에 나선 전담 목표 현지에서 42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기수일가를 선출하고, 부회장에 기연, 태인, 만석, 갑장 일가들, 가사에 기석, 봉 일가들 각각 선임했다. 지난 밤 내린 비로 먼지가 가라앉아 남도로 가는 길목에는 흐드러지게 피어오른 연산홍이 반짝였으며, 목표의 상징 유달산에도 연록색으로 단정한 신록이 우수 일이나 우리를 환영한다. 때 이른 더위에 일찍 나온 새싹들이 연산홍을 감싸고 연둣빛으로 수를 놓았다. 조각공원에 들어서 예쁜 조각 작품 옆에 서니 연초록 잎새를 제치고 목표가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난 공원의 대형 난 전사판에는 동양란 120종, 서양란 94종 등 난의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었다. 유달산 관

망의 중심지인 노적봉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이영을 덮어 군량미로 위장하여 왜군의 기를 꺾었다는 전설이 배어 있다. 노적봉 앞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충무공 동상이 큰 가을 옆에 차고 지금도 목표 앞바다를 지켜주고 있다. 기암과 석으로 얽혀진 유달산 정상 일등바위까지 오르는 길목 요소 요소에는 대학루, 달선각, 유선각, 관운각, 소요정, 낙조대 등 예쁜 정자들이 연초록 잎새를 제치고 목표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중 "목포의 눈물 노래비"는 목포가 나온 가수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우리 모두가 흥얼거리게 한다. 우리는 삼학도 앞 횃집에서 늦은 점심에 오가피주를 반주로 건배했다. (전주시종친회 고문 洙敎)

단체총보비(1~4월) 단위천원	
평해공파 수원총중	400
감사공파 안산총중	300
전북도종친회	300
세마공파총회	300
대구경북총친회	300
고성군종친회(삼혈)	200
울산시종친회	200
전주시종친회	200
전주시종친회(기영)	200

	단위천원
태안군종친회	200
하다리종친회	200
낙안공파총회(복성)	100
군산시종친회	100
노립익상총중(수원)	100
고창군종친회	100
정간강하 총의공(경석)	100
금촌분회(기동)	100
곡성군종친회(상우)	100
진해시종친회	50
합계	3,550

청주한시중앙종친회 (재)청한장학회

*청주한시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3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증보비)
*청주한시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3901-04-016854 (축보 수단금)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정학7금)

"정성 어린 헌성(獻誠)에 감사드립니다"

부

전 대법관 한환진일가 별세

대법관(대법원 판사)을 지낸 한환진일가가 지난 3월5일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92세. 환진일가는 1941년 일본 교토대학을 졸업한 후 42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45년 평양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판장, 법제처 상임위원, 서울연호사회 상임위원장 등을 거쳐 73년부터 81년까지는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선호(순천향대 의대교수), 장녀(합우정 Y&B의원 의사), 손자 영근(서울대약대 조교수), 성근(회계사)일가가 있다.

장학회관을 우리 손으로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장학기금 출연하여 명예로운 이름을 길이 남겨 주십시오. 3연속 공무총리 탄생의 영광을 장학사업으로 이어갑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학회관 건립 출연금 약정제도 취지문

1.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질 동량(棟樑)의 거재(巨材)를 우리 한문에서 배출하기 위해 청한장학회 창립 6년만에 많은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2. 우리 청주한문은 장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후손들이 높은 학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선조들의 위업과 전통을 연변히 이어받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한문을 빛내고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3. 금융저축에 의한 이자수입이 부동산 임대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장학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동일한 액수의 기금으로 장학회관을 건립한다면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의 몇배가 된다. 취득세 소득세 등도 면제되므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4. 장학회관 건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이 '출연금 약정제'를 도입. 약정후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상한 종원에 대해서는 회원증 발급, 고유번호 부여 등과 함께 기념비와 장학회관에도 출연액수에 따라 명서록 또는 동판 명서록에 성함을 각인하여 그 공적을 영구히 후세에 대대로 전하고자 한다.

장학회관 모금 목표 및 방향

장학회관 건립 모금목표

- 회관건립 소요액 총 55억원

장학회관 건립 모금방향

- 직접납부 또는 약정(3년 분할납부 가능)
- 3천만원부터 단위장학회 설립
- 기부, 증여, 유증에 의한 출연(현영(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단위장학회 설립 내용

- 출연자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장학증서도 직접 수여.
- 대대손손 이어가는 명예로운 유산(상속권 지속)
- 해외 거주 일가 출연 환영

모금참여방법

기부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일가 여러분들의 참여가 한문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약정방법

- 전화접수 : 02-720-6370~1 - 방문접수 : (재)청한장학회 및 중앙총친회 사무실(동일)
- Fax 접수(소정양식) : 02-720-9215 - 온라인접수(소정양식) : www.chongjuhan.net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09-25-0015-377 예금주 : (재)청한장학회 - 지로 : 회보

장학회관 건립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 100만원 이상 : 장학회관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 ▶ 1,000만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 ▶ 3,000만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3. 단위장학회 설립
- ▶ 1억 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3. 단위장학회 설립
- ▶ 5억 원 이상 : 1. 증별 동판 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층을 출연자의 층으로
2.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3.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4. 단위장학회 설립
- ▶ 10억원 이상 : 1. 회관내 "명예의 전당"에 흉상을 세우고 이력사항을 기록하여 후손들의 시표(師表)로 영구히 보존
2. 증별 동판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층을 출연자의 층으로
3.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4.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5. 단위장학회 설립

장학기금 출연시 세제혜택

개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거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공제혜택

법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범위내 공제혜택·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1항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



2005년도 장학기금 20억 달성 기념비 제막행경

건축개요

알찬 사업준비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실패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곳- 든든한 바위 같고, 편안한 고향 같은 만남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웨딩홀, 회의실, 만남의 장소, 전시장 등-

- 대지위치 : 교통이 원활한 신도시 지역
- 연면적 : 3,306평방미터(1,000평)
- 건축면적 : 331평방미터(100평)
- 건축규모 : 지상 10층, 지하 3층
- 주요구조 : 철근 /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30대

일반시설(거취)

- 회원교류시설 : 만남의 장소, 명예의 전당, 재단사무실
- 회의실 : 각종 모임 및 회의장소
- 안내시설 : 은행, 전시장, 비즈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업무용사무실 등
- 수의시설 : 웨딩홀, 연회실 등

운영개요

여러분이 출연하는 건립기금은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한문발전을 위한 연구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장학회관의 역할

- 한문의 긍지와 위상에 걸맞은 만남의 장
- 세계속의 한문으로 한문을 발전시키는 자원센터 기능
- 청한장학회의 장학생들이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

장학회관의 기대효과

- 장학회관 완공시 매년 수억원의 순수익 예상
- 수익금은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한문발전을 위한 역사연구비 지원 및 문화사업비 등으로 전액 사용

모금개요

장학회관 건립 모금목표 55억원-

100만 국내의 일가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적극 동참합니다.

- 홍보 발송시 동봉된 무정액 자료 이용
- 신용카드 : 홈페이지를 통한 납입
- 자동이체(CMS) : 인터넷뱅킹 가래은행에 의뢰
- 직접방문 : (재)청한장학회 사무실 방문 납입(주소, 부동산 등)